

CryptoCraft Lab 학부연구생 후기

한성대학교 정보시스템공학과 14학번 임지환

Jhim147605@gmail.com

저는 운이 좋게도 서화정 교수님께서 한성대학교에 2017년 1학기에 부임하시고 처음으로 강의 해주신 C언어 수업을 듣게 되어 교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정보보안을 공부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던 상황에 교수님께서 정확한 방향을 주신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정확한 방향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가능하다면 CryptoCraft Lab에서 뛰어나신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내주신 과제가 정보보안 컨설팅에 대해 조사하고, 학생들 앞에서 30분 정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료조사도 잘 못 하고, 발표는 5초 말하면 끊기는 수준으로 형편없었지만, 연구실 활동을 하며 학습 및 세미나 (논문작성, 공모전 참여, 학술대회 참여, 암호구현, 프로그래밍, 제안서 작성, 세미나 발표 등)를 수행하며, 지식만이 아니라 글쓰기, 발표 능력 향상 등 수업만 들어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부족하였던 자료 검색 능력, 발표 능력이 가장 큰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에는 국가암호 공모전을 통해 박사, 석사 선배님들과 협업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는 IoT 프로세서 환경에서 CHAM 최적화 구현이었고, 기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배님들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시작에 제안서 작성과 WBS 도표로 프로젝트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방향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팁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연구실에 들어갔던 2017년 초에 BoB 6기에 지원하여 떨어졌지만,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지도와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에 BoB 7기 보안컨설팅 트랙에 합격하여 보안 전반에 대해 학습하며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프로토콜, 네트워크, 시스템, 클라우드 등 IT 여러 분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연구실 생활이 IT 분야를 학습해 나아가는데, 좋은 방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며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 선배님, 동기, 후배에게 감사드립니다.